

開發에 관한 研究

(YWCA의 職業開發事例를 中心으로)

徐采沅*

I. 緒 論

우리나라의 低所得階層에 對한 社會福祉의 自助事業改築은 1945년 8·15以後 約 半世紀동안 많은 發展을 하여왔다. 特히 1960年代의 無償救護政策과 勤勞救護政策이 區分되는 轉換期에서 부터 찾아 볼 수 있다.

1980年以後 勤勞能力이 있는 低所得階層에 對한 勤勞救護對策은 自助事業政策으로 여러가지 事業의 種類가 增加했다. 即 就勞事業, 生業資金融資, 零細民 地方移住 支援事業, 醫療保護, 教育保護, 解産保護 및 職業訓練事業등의 制定的인 諸模型이 이들의 社會的慾求를 充足할 수 있도록 具現되었다.

이와 같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個人의 人間다운 生存에 必要한 基本的 慾求 充足을 위하여 所得維持를 스스로의 힘으로 解決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社會福祉의 對象으로 여겨온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勤勞의 能力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生活을 영위하지 못하는 對象이란 個人이나 家族의 失職 또는 低所得으로 因한 生活困窮者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중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低所得家庭의 女性들이 많이 있다.

男性들에 비하여 이들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低所得狀態에 처해 있으면서 不安定한 生活을 하고 있다. 이들 低所得女性들은 勤勞能力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生存의 基本的 慾求를 充足하지 못하는 對象이라고 볼 수 있다.

* 韓國人時間講師

이 논문은 송실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練制度를 만들어서 政府主導型和 民間主導型 프로그램으로 實施하고 있는데, 주로 政府主導型에 置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福祉理念에서 期待되는 人間다운 生存의 基本的 慾求의 充足과는 乖離가 큰 受惠者의 苦情은 勿論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構造的으로 未備한 實情이다. 즉, 職業訓練 對象은 法的零細民만이 해당되게 되어 있어, 사실상 法的零細民으로 策定되지는 않았으나 그 所得과 生活水準이 法的零細民과 大同小異한 階層이 職業訓練 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生活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自身の 勞動能力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여 自己生活을 營爲하고 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方法이 要求된다. 即 社會福祉政策의 自助事業方法中에서 女性을 위한 職業訓練프로그램을 開發하고 職業訓練을 시키므로 各者의 能力에 따라 所得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다. 또한 이 方案에는 政府의 役割뿐만 아니라 民間社會福祉團體의 參與와 役割도 重要視된다. 따라서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나라의 低所得階層女性의 福祉·政策도 政府의 財政的 支援下에 民間社會福祉團體의 主導的 努力으로 自立基盤을 造成해 나가는 方式으로 展開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低所得階層女性의 經濟的 自立方案으로서 職業開發事業을 實踐事業으로 關與했던 民間機關중 한국 YWCA(이하 Y라 칭함)의 事例(도배훈련과 취업실태)를 중심으로 經濟的 自立方案을 研究하게 된 것이다.

1. 研究目的

本 研究은 Y에서 實施한 바 있는 職業開發에 關한 實踐研究(Action Research)이다. 低所得階層 女性을 위한 職業訓練에 參加했던 對象들로 부터 收集된 資料와 經驗을 根據로 하여, 女性의 自立生活은 公·私의 機關이 機能的인 觀點에서 合理的인 役割分擔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前提下에 다음과 같은 研究目的을 設定했다. 즉, 民間機關의 職業開發事業이 低所得層女性의 所得保障과 經濟的自立을 可能케 하는지의 與否를 규명코자 한 것이다.

첫째, 民間機關의 職業開發 및 訓練事業의 運營 및 實踐이 政府主導型으로 運

三째, 職業開發事業의 實施과 社會的 關係의 造成과 各種 상담서비스의 手反되어야 하는가를 實證的으로 立證하고자 한다.

셋째, 職業開發事業에 參與하는 低所得層 女性의 慾求와 特性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職業訓練 및 開發事業은 어떻게 또는 어떤 職種이어야 하는지를 立證하고자 한다.

네째,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을 위한 政府의 職業訓練 서비스는 무엇이며, 公·私間의 役割機能의 協力事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모색코자 한다.

2. 研究方法

本 研究은 Y의 職業開發 訓練對象者의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하여 職業開發訓練事業이 低所得層 女性의 慾求充足에 어느 정도 效果가 있는가를 分析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따라서 低所得層 女性의 特性과 慾求를 파악하는데 일차적 重點을 두었고 이들의 慾求充足을 위한 公私의 職業開發프로그램 實態와 公私間의 役割分擔에 대해 研究하였다.

本 研究에서 사용된 測定道具는 質問紙로서 構造化된 質問과 非構造化된 質問으로 만들어졌다.

研究의 對象은 Y에서 實施한 職業開發事業에 參與한 低所得層 女性으로서 1983년~1986년까지 3年間 도배직종에 參與한 목포, 부산, 전주, 제주YWCA의 총 연인원 325名中 103名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本 研究에서 使用한 標本의 推出方法은 目的標出方法(Purposive sampling)이었다.

수집된 資料는 訓練 前·后로 區分하여 SPSS로 統計處理하였다. 資料分析은 頻度 및 百分率로 訓練成果의 前後를 測定해 보았고, 그외 收入程度 等 經濟的 自立에 관련된 充足도와 社會心理的 測定은 Chi-square기법으로 分析하였다.

II. 低所得階層女性の 社會的性格

이들은 自身들의 能力으로 市場메카니즘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 또는 서비스를 획득할 수 없는 계층의 여성들을 의미한다. 即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편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한 개념이다. 따라서 政府의 低所得階層을 위한 職業訓練 대상뿐만 아니라 官·民의 福祉館에 또는 民間團體에서 職業訓練을 實施하고 있는 生活保護對象外에도 低所得女性들 모두를 包含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의 低所得階層女性들이란 法定零細民은 勿論이고, 所得이 中斷 또는 不足한 低所得家庭인 경우 法定 또는 行政적으로 規定된 社會的 資源을 必要로 하는 低所得女性 모두를 指稱하고 있다.

1. 低所得階層女性の 特性

一般的으로 低所得層의 特性은 不安定就業으로 因한 適正賃金の 不足이라는 點이다. 即 이들의 職業的 性格은 매우 不安定한 都市非公式部分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職業上 雇傭實態는 日雇勞動, 零細自營業, 臨時雇, 時間制, 雇傭人 및 低學歷者의 常傭職 및 失職等이었다.

以上에서 나타난 職業實態에서 生活自立이 不安定한 家口는 社會心理적으로도 不安하여 生計困難은 勿論 兒童教育問題, 疾病, 無住宅 등으로 큰 壓迫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低所得階層의 基本慾求

低所得階層의 基本慾求是 本 研究의 中心資料인 Y의 職業訓練對象에서도 其他 貧困對策에 關한 研究資料에서와 마찬가지로 共通的인 內容이 나타났다.

이들의 慾求內容을 集約해 보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 1) 就業 및 就業安定慾求
- 2) 生活安全 및 向上慾求
- 3) 子女教育에 대한 慾求

- 5) 職業訓練 및 雇傭機會의 慾求
- 6) 住宅所有에 관한 慾求
- 7) 自己啓發에 관한 慾求
- 8) 餘暇活用の 慾求

III. 低所得階層의 生活自立政策

政府는 社會福祉의 理念이나 方式에서 目標하고 있는 個人의 能力이나 創意力을 發揮하여 獨立的으로 生活해 나갈수 있도록 위의 社會的慾求를 充足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社會福祉의 自助·自立 理念도 社會保障法에서 「정부는 사회보장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生活保護法은 勤勞能力을 活用한다는 前提하에서 이를 補充·發展시키도록 保護規定의 基本原則이 制定되었고 各 個人은 個人 및 家族을 위하여 最大限 國家의 保護水準以上으로 自立精神을 가지고 生活하도록 目標을 두고 있다는 것을 緒論에서 이미 指摘한 바이다.

1. 生活自立을 위한 社會福祉機能

政府는 앞에서 制定된 低所得階層을 위한 生活自立을 保護規定으로서 諸般自助事業政策을 國家의 社會福祉機能으로 提示하고 있다. 이는 社會福祉를 위한 保護, 豫防, 및 開發機能들이다. 이를 實踐하기 위하여 官·民의 役割機能中에서 就勞事業, 生業資金融資, 地方移住事業現況 및 其他 醫療保護事業과 教育扶助 및 保護事業을 除外하고는 民間의 協力事業으로 職業訓練에 관한 役割機能이 있다.

本論文에서는 民間機關을 통한 職業訓練事業을 中心으로 低所得階層의 機能習得과 就業에의 機會提供의 實態를 研究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低所得階層을 위한 自立生活을 위한 職業訓練事業은 官·民의 事業으로 訓練뿐만 아니라 就業의 機會도 알선하고 있는 實態이다. 그러나 官·民의 就業訓練 및 就業實態는 訓練種目이나 訓練對象, 그리고 就業實態나 訓練種目 및 서비스環境 등이 官·民 모두가 類似할 뿐만 아니라 政府의 서비스는 民間의 서비스에 비하여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는 生活保護水準 以下の 階層만을 對象으로 職業訓練事業을 實施하고, 그 以上の 對象에 대한 職業訓練事業은 民間에서 맡아 實施케 하므로 低所得階層의 所得向上과 自助能力을 도모하는 公·私의 役割分擔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IV. 結 論

本 研究는 低所得階層의 生活自立을 위하여 民間機關이 實施한 單純勞動 集約的 職業開發에 關한 效果測定이다.

所得保障과 經濟的 自立을 目的으로 한 效率的 運營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배직종에 참여했던 모든 여성을 연구 목적으로 한 目的 標本 推出方法을 使用하여 1983-1986년까지 3년간 YWCA의 職業訓練에 參與한 低所得階層女性 總 325명중 103명의 對象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本 研究에서 도배기술을 전수받은 低所得層 女性들은 訓練後 1년~3년의 就業에 參與한 女性들에게서 얻은 資料를 分析한 것이다.

이들은 Y에서 直接 就業을 알선하였거나 本人이 直接 紙業所를 통하여 就業하였다. 이들의 就業活動을 통하여 保障된 所得은 最低 50萬원에서 最高 300萬원의 年所得으로서 家計所得이 增加할 수가 있었다. 이들이 勞動日數는 家事를 並行하면서 月平均 約 12日이고 많이 就業하는 女性은 20日이 넘었다.

이들의 特性은 不安定 就業家口이며 低學歷者이다. 그리고 30-40代 年齡의 女性으로서 대부분 2-3명의 學齡期兒童을 둔 核家族 女性들이다.

計維持, 住宅마련, 子女教育, 家族健康 等 慾求充足을 相當히 解消시키고 있는 實情이었다.

民間機關에서 低所得階層女性을 위한 就業 및 社會的 適應을 돕기 위하여 訓練後 도배클럽集團을 組織 活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1) 동료들과 취업정보를 교환하는 상부상조하는 활동이 가능했다.
- 2) 도배와 관련된 일감들을 서로 협력하며서 경쟁이나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
- 3) 도배클럽의 정기 월례회를 통하여 새로운 재료와 도배공법등을 익혀 상호 교류가 가능하며 도배직종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관의 職業開發 프로그램을 低所得層 女性에게 直接 실시해 본 結果 상당히 背定的인 效果를 얻고 있다.

民間機關의 事業으로서도 低所得階層 女性의 自助能力增大와 自發的인 相互支援體系를 確立해 주므로서 民間團體의 職業開發프로그램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그 目的을 提示한 意義를 達成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

即 民間機關의 職業開發事業은 모든 低所得層女性에 대한 社會的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할 수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團體研究結果를 通하여 政府에서는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民間의 職業開發事業을 活用하는 方案이 要求된다.

1) 현재 정부에서 영세민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사업등을 단계적으로 民間機關과 같은 職業開發事業方式으로 轉換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民間團體中心으로 이러한 事業을 推進하여 그 地域社會의 福祉機能을 主導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有關機關과의 相互協力 支援體系를 構成함으로써 低所得階層女性에게 適合한 職業需要를 多角的으로 開發할 수가 있다는 長點이 있다.

3) 零細民 및 低所得階層의 慾求에 입각한 職種프로그램은 보다 獨特性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適合한 職業開發프로그램은 試範的이고 融通的이며 補充的인 民間機關에서 可能하다.

따라서 政府는 民間機關을 通해서 開發되는 職種들에 대하여 政府에서는 이러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메추리 닭은 닭과 다른 닭이 되기 전에 닭이 된다고 본다.